

<서평>

『여성을 위한 설교』

Preaching That Speaks to Women

엘리스 P. 매슈스 저, 장혜역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이윤경*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여성혐오’가 페미니즘 논쟁의 핵심어로 등장하였다. 분명 아카데미아 논쟁의 일부였던 페미니즘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일상 논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단순한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혐오’ 살인으로 범죄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여성혐오’는 단순한 논제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이 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모행위 중에 급진적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메갈리아’¹⁾와 메갈리아의 과격분파인 ‘위마드’²⁾가 가세하였다. 이 집단의 등장은 ‘여성혐오’ 논제가 일상 논제가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여성혐오’가 논제로 등장함으로써,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개인이나, 언론집단과 정당이 메갈리아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인해 해직, 구독해지, 탈당 등의 시련을 호되게 겪고 있다.³⁾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기독교학과

- 1) 메갈리아는 인터넷 사이트이다(www.megalian.com). ‘메갈리아’라는 이름은 전신인 디시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와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에 나오는 가상 국가 이갈리아의 합성어이다.
- 2) 메갈리아로부터 파생된 사이트로 이름의 유래는 ‘woman + nomad = womad’이다.
- 3) 넥슨의 온라인 액션게임 클로저스에서 ‘티나’의 목소리를 담당했던 성우 김자연은 여성 혐오를 혐오하는 이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 후원금을 보낸 유저에게 증정한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 때문에 교체되었고, 그녀의 음성은 삭제되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기획기사 ‘분노한 남자들’이 메갈리아를 옹호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독해지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혐오 범죄와 소위 ‘여혐’ 논쟁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가? 더욱이 한국교회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일반사회에서 가장 핫이슈인 여성혐오 논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상 한국교회에서 여성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교회의 리더십 영역에서만 소외된 것이 아니라, 강단 설교의 주된 청중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교회에서 매주 선포되는 설교에서 ‘여성’이 주요 청중으로 상정되는 경우는 여신도회 헌신예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성을 위한 설교』는 설교자에게 본인 설교의 청중의 절대다수는 여성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이 책의 저자 앨리스 P. 매슈스는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육과 여성 목회’ 분야 교수였고, 라디오 방송 ‘디스커버 더 워드(Discover the Word)’의 진행자로도 활동하였다. 그래서 이 책은 목회와 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전문가가 교회 현장을 향한 실천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 책은 여자대학에서 교목으로 일하고 있는 필자에게 제목부터 관심을 갖게 한 책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내 설교의 청중이 여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가?’였다. 이런 자기 비판적 생각은 책을 다 읽을 무렵 앞으로 설교에서 여성 청중을 어떻게 고려하며, 구체적으로 설교의 메시지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책은 전체 열 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1장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것은 사실일까’는 나머지 아홉 장의 서론 격에 해당하는 장으로서, 설교자가 ‘여성’ 청중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알아야 된다는 지극히

가 줄을 이었다. 한겨레는 여성학자 정희진 칼럼이 실린 이후 구독을 중지하겠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거세게 등장하자 관련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희진 칼럼을 읽어볼 것을 추천하고 정희진의 강연회를 준비했다가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것이냐며 수십 명의 회원이 후원탈퇴에 나서기도 했다. 정의당은 자당의 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게임회사 넥슨의 성우교제 사건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가, 탈당자가 속출하자 논평을 철회시켰다.

상식적인 이야기로 시작한다. 저자는 우리가 젠더 상식으로 여기는 사항들이 실상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즉, 저자는 ‘여성’을 성과 젠더로 이야기 할 때 종종 벌어지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점이 과장되거나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설교자가 ‘젠더’에 대한 자신의 전(前)이해를 점검해 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마도 어떤 독자는 1장을 읽으면서, 성과 젠더에 대한 선입견이나 전이해로 인해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혼미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글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눈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저자는 1장에서 설교자에게 남성과 여성의 젠더조차 이분법적 논리 범주로 보지 말고, 사회적 상황 가운데 있는 여성 개인을 향해 설교하라는 예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이 책이 앞으로 보여줄 다층적, 다면적 관점을 예고하고 있다고 본다.

2장 ‘도덕적 의사 결정을 위한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방식 곧 ‘마음을 다해’라는 관점에서 설교가 전달해야 할 바를 말해주고 있다. 저자는 설교를 통해 성경 속 윤리적 의사 결정이 말해주는 바를 전달하라고 말한다. 즉, 성경 속 윤리적 의사 결정은 원리와 그 원리가 적용되는 상황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책의 구성의 특징이자 장점인 매 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더 생각해볼 문제’에서 “당신이 전한 최근 세 편의 설교를 생각해볼 때 당신은 추상적인 원리와 그것이 적용되는 관계적 상황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유지했는가?”라는 질문은 지난 주 강단에서 외친 설교를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줄 것이다. 설교자는 성경이 전하는 원리만 전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가 적용되는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경적 윤리적 원리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엄중한 과제를 다시 한 번 더 각성해야 한다.

3장 ‘심리적 온전함을 위한 설교’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정신물리학적 관점에서 ‘목숨’을 관찰하고 어떻게 여성이 심리적 온전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할 것인지를 설교를 통해 전달할 것을 강조한다. 특별히 3장에서 저자가 ‘성경적 자존감’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자들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내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통상 한국교회에서 ‘죄’와 ‘죄인’과 연관해서 떠오르는 생각은 실상 ‘자존감’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오히려 수치심, 무기력, 죄의식이다. 그런데 ‘성경적 자존감’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정하는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4장부터 6장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한다. 4장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는 인식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식론은 세상을 보는 방식, 세상 속에 있는 자신을 보는 방식을 형성한다. 저자는 여성이 인식하는 방법을 다섯 종류로 구분한다. 즉, 수동적 자세로부터 주관적 판단을 거쳐 객관적 전략까지로 인식 방법을 나누고, 이에 따라 침묵하는 여성, 수용적 인식자, 주관적 인식자, 과정적 인식자, 구성적 인식자로 구분한다. 설교자는 여성의 인식 방식을 따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설교해야 한다. 5장 ‘현대의 청중과 포스터모던 시대의 청중’은 ‘진리’에 대한 담론 자체가 낡은 것이 되어 버린 인식론적 변화가 요구되는 포스터모던 시대에 여전히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설교에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직시한다. 6장 ‘여성과 영성, 믿음의 문제’는 영성이 인식론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설교자가 어떻게 다양한 인식자 유형의 여성을 도와 여성이 자신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말하고자 한다. 저자는 설교를 ‘믿음

으로의 부름'이라고 정의 내린다. 믿음에 대한 설교에서 '신앙' 즉 믿어야 할 교리 일체를 설교하는 것이 설교의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저자의 관점은 설교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7장과 8장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생각한다. 7장 '여성'과 '권력의 문제'는 능력, 힘, 세력, 권력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성의 권력과 권력 없음의 문제를 탐구한다. 그런데 번역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자는 능력과 권력을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능력이 곧 권력은 아니다. 저자가 이미 지적하듯이, 예수의 능력 사용은 사랑으로 통제된다. 바로 이 점에서 능력과 권력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예수는 자신의 능력을 권력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자는 계속해서 '권력의 경건한 사용'을 이야기한다. 번역의 문제라면 오히려 '능력의 경건한 사용'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옳을 것이고,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경건한 사용'이 저자의 주장이라면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주장이라고 하겠다. 권력의 경건한 사용이 도대체 가능한가? 물론 저자가 청중 가운데 권력을 지닌 자를 향하여 '권력의 경건한 사용'에 대해 고민하라는 주장은 실용적이며 정당하다고 본다. 또한 다수의 여성의 교회 안팎에서 권력의 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과 권력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정당한 논제라고 본다. 다만 '권력'의 문제는 젠더 문제에서 매우 정교하게 접근해야 하는 주제라고 본다. 단순한 '경건한' 사용이라는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권력이 경건할 수 있는가'와 같은 보다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권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8장 '다른 리더십'은 여성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설교자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사용해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저자는 이 리더십을 '중간으로부터의 리더십'이라고 명명한다. 리더십은 필연적으로 7장에서 다룬 '권력'의 문제와 얽힌다. 저자는 일반사회에서 여성이 권력을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유사하게 여성 성직자 역시

회중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회중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있음을 소개한다. 아마도 저자는 이런 점에서 ‘권력의 경건한 사용’이 여성에 의해 가능해지리라고 믿는 듯하다.

9장 ‘여성과 역할, 성경적 정체성’은 이웃사랑의 문제를 돌아보고 있다. 이 장은 이웃사랑을 보다 구체적인 범위에서 생각하는데, 저자는 교회의 주류 여성에 속하지 못하고 소외된 여성들, 예컨대 미혼여성이나 불임여성을 언급한다. 저자의 이런 세심한 지적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빈번하게 자행되는, ‘남편과 자녀가 있는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정형화하는 강단설교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상처받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한다. 마지막 장인 10장 ‘청중으로서의 여성을 이해하기’는 설교할 때 일반적으로 범하는 소통의 실수를 살펴보고, 설교자가 여성 청중에 대해 더욱 세심해질 것을 당부한다.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정형화된 역할 분배나 분명 여성이 교인의 절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교인을 주된 청중으로 전제하는 설교 언어 등으로 인하여 여성이 마치 보이지 않거나 주변화 되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저자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설교란 ‘편안해하는 자를 괴롭게 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경구를 철저하게,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실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강단 설교는 ‘여성혐오’로 넘쳐나고 있다. 세상의 여성혐오는 강단 설교를 통하여 공고해진다. 교회는 수동적 여성상을 이상적 여성상으로 제시하는데, 사회는 적극적 여성상을 이상화 한다. 교회도 사회도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자 적응하지 못하고 여성혐오에 빠지게 되었다. 교회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교회로 여성혐오는 왜곡된 모습으로 악순환 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자가 교회 강단 설교부터 근본적으로 세심하고 배려있는 태도, 언어, 생각, 선포를 통하여 변화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 설교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